

LG화학 청주공장 환경개선 우수

금강환경청이 LG화학을 환경개선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과 충청권의 녹색기업 40곳 가운데 4곳을 환경개선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12월 28일 발표했다.

선정된 4곳은 LG화학 청주공장,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LS산전 청주공장, 유한킴벌리 대전공장이다.

환경청은 환경정보공개 및 환경개선실적 부문, 온실가스 감축부문, 환경정책 참여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4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역의 환경정책과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대표기업을 선정했다”며 “녹색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10/12/29>